

## 『더 나은 수업! 더 높은 가능성!을 만드는 미래 교육과정 만들기』

상무고등학교 이동수  
([dslove2000@gmail.com](mailto:dslove2000@gmail.com))

교육. 사람을 기르는 일. 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로서 마주하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보며, 그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과 응원을 안고 살아간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주 많은 고민이 든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기술 교과와 본질적 가치를 알게 하고, 그들의 삶에 쓸모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나를 늘 좋은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시나브로 스며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고,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다시 그 가치를 물들게 한다. 그렇게 과학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시각을 확장하고, 시선을 교차하며, 감정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기술의 내용만큼 기술이 가진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 그리고 그 영향이 학생 자신의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배움은 끝이 없고, 배움의 내용은 깊고 넓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래교육 트렌드 읽기 연수는 많은 도전과 영감을 주었다.

챗GPT, 디자인씽킹, 창의 인성, 그리고 STEAM까지. 지금, 우리 교육에서 가장 화두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명강사로부터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들이었다. 특히, 최유현 교수님의 'Innovating Pedagogy'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거나 자신에게, 그간 내가 가졌던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강의였다. 2022년 챗GPT라는 생성AI를 접하고, 2023년 올해 기술교과에서 챗GPT를 활용한 동화 만들기 과제로 수업을 전개했다. 더불어 생성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직업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토의토론 수업을 이어 나갔다. 다만,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불안이 나를 늘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최유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 이러한 의문과 불안이 모두 해소되었다.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의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구나! 하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할 때, 학교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는 성토가 이어질 때, 꼭 언급되는 것이 바로 수능이고,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이다. 그래도, 비판과 불만에 멈춰있을 때는 아니다. 우리부터, 교사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 달라짐의 시작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생각하며, 새로움을 많이 느낀 이번 연수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